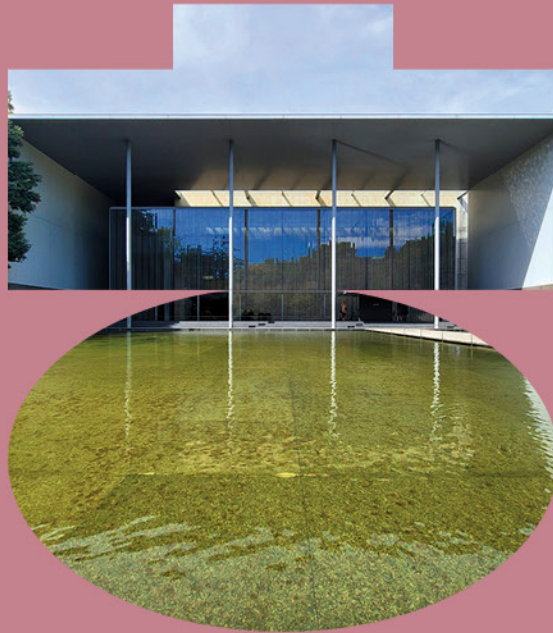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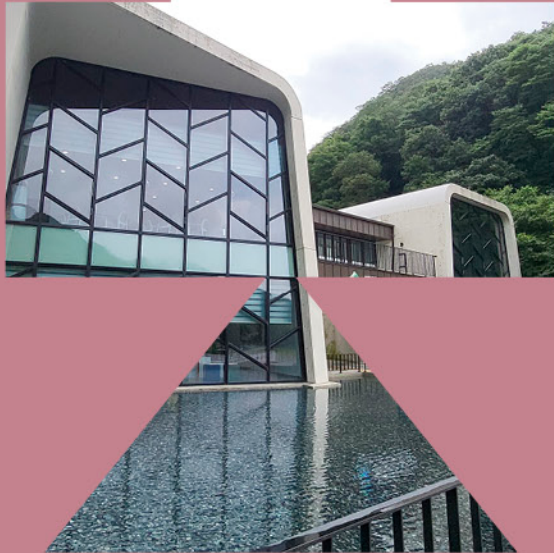




시론 02

우에노공원에서

답사기 03

상해 3박 4일 건축기행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비주거 건축물 의무비율 15% → 10% 완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 광주_아시아건축대전 '인권 + 건축'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6-07

2024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남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전라남도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전북 지역 뉴스 08-09

이길환 건축사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개최
'202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올림픽아드' 개최

스케치 10

안호영 건축사 / (유)어반후드 건축사사무소(전남)

설계경기 11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몽당빚자루
한 장의 사진 _ 동백섬에서 바라본 달맞이언덕
책 소개 _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10.17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우에노공원에서



이동희 논설위원 /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22~2024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
- 2023~2024 한국농촌건축학회 부회장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1990년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서 무작정 건너간 일본의 도쿄. 오전에는 요코하마로 일본어를 배우러 다니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는 한식당 일을 하며, 청춘의 꿈을 지피던 시절. 어쩌다 주어진 휴일에 무심하게 발길이 닿은 곳, 거기가 바로 '우에노공원(1873)'이었다. 53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부지에 널따란 연못과 커다란 동물원이 있으며, 수많은 시설물이 산재해 있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 일본 나라타국제공항에서 특급열차를 타면 바로 연결되는 도쿄 시내... 그 한 모퉁이, 처마 끝이 살짝 둥글게 말려 올라간 낯선 콘크리트 건물을 배경으로 스물네 살의 내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공업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건축을 공부했지만,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업이 전부였던 탓에, 건축을 예술의 한 분야로서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해 공부한 후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으나,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 후 건축 공부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바로 일본행이었다. 당시 '국립요요기경기장(1964)'과 '동경도청사(1990)' 같은 일본의 건축물들은 거대하면서도 아름답고 또 정교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어떻게든 타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내게는 미처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2024년 오늘 거기에 다시 내가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34년 전 빛바랜 사진 속의 그 건축물이 '동경문화회관(1961)'이고,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1905~1986)가 설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 마주하고 서 있는 건축물이 '국립서양미술관(1959)'이고, 르코르뷔지에(1887~1965)가 설계한 동아시아 유일의 작품이란 것도... 마에카와는 르코르뷔지에의 일본인 제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나머지 제자인 사카쿠라 준조(1901~1969), 요시자카 타카마사(1917~1980)와 함께 국립서양미술관의 실시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발길을 돌려 근처에 있는 '동경국립박물관(1872)'으로 향한다. '본관(1938)'을 지나쳐 곧바로 아시아 보물들이 전시된 '동양관(1968)'으로 달려간다. 건축가 타니구치 요시로(1904~1979)가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잔디밭에 한 쌍씩 서 있는 석물들이 범상치 않다. 아니나 다를까! 평양과 강원도에서 건너온 문관석들이다. 한국에서 왕릉이나 사대부 묘지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들이 낯선 이국땅 박물관에서 쓸쓸하게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5층(제10실) 조선반도(한국) 전시실로 올라간다. 그 유명한 '오구라 컬렉션(Ogura Collection)'이 있는 곳이다. 즉,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집한

문화재 1,100점을 1981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선보이고 있다.

다음 장소는 예전부터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법륜사보물관(1999)'이다. 법륜사가 일본 황실에 헌납한 7세기 보물 33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우선 직사각형의 큰 철판 상자 안에 작은 유리 상자를 집어넣은 듯한 독특한 건축물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앞마당에 조성된 거울 연못의 잔잔한 수면 위에 박물관이 거꾸로 비추고, 그 위 통로를 따라 관람객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정통파 모더니즘 건축가로 불리는 타니구치 요시오(1937~)가 설계한 작품인데, 그는 바로 앞의 동양관을 설계한 타니구치 요시로의 아들이다.

이번 도쿄 여행의 삼박사일 일정 중에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우에노공원에서 보냈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서에 걸쳐 맺어진 사제지간의 건축물과, 세대를 넘어 이어진 부자지간의 건축물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저 마에카와 쿠니오는 스승인 르코르뷔지에의 자유로운 디자인 어휘와 거친 콘크리트 물성을 자국에 이식하면서도, 일본의 전통적 디자인 수법과 재료적 질감을 부가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정교함을 중시하는 일본 장인의 솜씨가 더해져 두 개의 건축물 모두 명품으로 만들어진 느낌이다.

또한 타니구치 요시오는 부친인 타니구치 요시로의 무겁고 폐쇄적인 박물관 디자인을 답습하지 않고, 가볍고 개방적이며 세련되기까지 한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그러면서도 일본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늘고 긴 부재 사용, 발을 내려친 듯한 형상의 반투명 공간 조성, 전통 정원에서 보이는 수변 공간 배치 등의 수법을 구사하였다. 이것이 내가 대중 어림잡아 본 르코르뷔지에의 국립서양미술관과 마에카와 쿠니오의 동경문화회관, 그리고 타니구치 요시로의 동경국립박물관 동양관과 타니구치 요시오의 법륜사보물관의 관계성과 상이성이다.

일본 도쿄는 나의 첫 해외 여행지이자 첫 유학지이다. 그리고 우에노공원은 청년 시절의 고단한 일상과 건축가의 꿈이 묻어 있는 추억의 장소이다. 예전에 거주하던 아자부 지역에는 최근 개발 바람이 불어 직·주·락 복합타운인 '아자부다이힐즈(2023)'가 들어섰다. 그 한 편에 우뚝 솟은 모리제이피타워의 33층 스카이라비 전망대에서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 시내를 내려다 본다. 저 멀리 어딘가엔 우에노공원이 있을 테고, 바로 눈앞에는 도쿄타워가 서 있다. 그 옛날 식당 일을 끝내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저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홀과 주방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수백 개씩 닦아내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 거기에는 내가 없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규,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40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상해 3박 4일 건축기행



추원호 건축사
신세대 건축사사무소 (전주)

전주시 건축사 회원(전건회)은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로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
전주에서 새벽 2시에 버스 두대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오전 6시경이 되었고,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고 상해 공항에 도착 하였다. 15년 전 다녀간 이후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기념비적인 높은 빌딩과 고층 아파트, 깨끗한 도로가 눈에 띈다. 한국은 가을철 9월이지만 그곳 상해는 남쪽에 위치하여 한국의 한 여름 속에 들어온 것처럼 무덥고 후텁지근했다. 도착하여 먼저 상해 임시정부 수립하던 건물에 들어와 그 당시 임시정부 논의하던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고, 105년 전 상해임시정부 유적지를 관람하였다.



다음날 5일, 상해 특유의 옛스런 고건축 건물들을 볼 수 있는 <신천지 스크먼> 거리를 관람하였고,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완공한, 높이 632미터(128층)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트위스트 디자인으로 설계한 상하이 타워(용이 승천하는 모습의 외관 디자인)에 입장하여 119층 전망대에 올라가 상하이 시내가 한눈



에 보이는 풍경을 관람하였고, 1993년 현상설계에 들어가 1998년 완공된 높이 421미터(88층)인 진마오 타워와 높이 492미터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외관을 관람하면서, 상업 무역의 도시 상하이의 발전 상황을 한 눈에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황푸강변에 있는, 1991년 착공하여 1994년 완공된 높이 468미터 건물인 동방명주 TV타워(설계: 지아한청 건축가)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였다.

6일에는 400년경 명나라 관료 반윤단이 아버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20여년에 걸쳐 만든 예원 및 날카로운 처마 끝을 자랑하는 고건축 옛거리를 둘러보고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과거로 들어와 있는 착각을 느끼게 했다.



저녁에는 상해시내 황포강에 나가 유람선을 타고 높은 빌딩들의 야경을 바라보며, 특히나 초고층 건물 외관에 화려한 조명시설 하여 강변을 아름답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부나 건물주의 헌신이 특이해 보였다.
그날 그날 하루가 끝날때 마다 땀에 젖은 육신을 전신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게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져 잠도 잘 온다.



9월 6일,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중수거 서점을 둘러보면 자연공원과 고건축 목구조 건물들을 둘러보았고, 트리 1000그루가 심어져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 불리는 상업 복합단지와 아트센터 구역을 둘러보았고, 가족 도살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상하이 1933 라오창광 건물에 들어가 보니 축사 도살장 치고는 너무 세련되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경사로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교묘하게 조합되어 구성되었으며, 구조물도 예술적으로 잘 지어졌다.



마지막날 7일에는 국립미술관으로 걸보기에는 빨간색 뼈대만 보이면서 역삼각형 건물인, 중국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중화예술궁과 UFO를 닮은 메르세데스 벤츠 문화센터 건물 외관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유명한 건축사 폴 앙드뢰가 설계한 복합 공연장이며 전시장인, 상해 오리엔탈 아트센터 외관과 특이하게 내부장식을 한 실내공간을 관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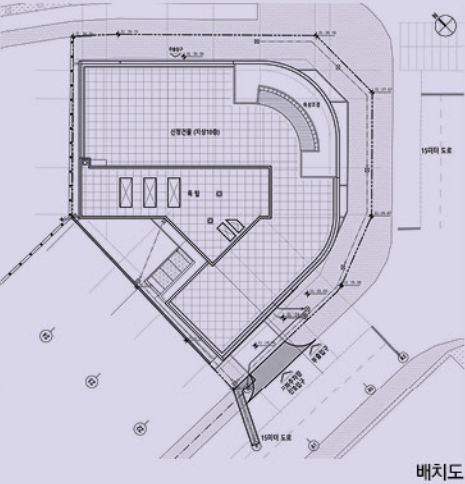
이렇게 3박 4일간의 짧은 시간동안 상업 무역 도시를 간단히 둘러보고, 4시 비행기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7시 도착하였다.

새여수새마을금고 웅천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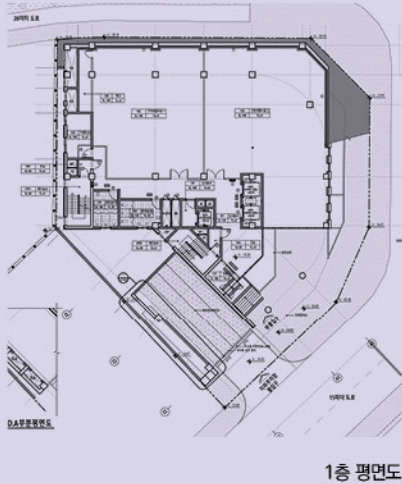
심상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SIM
광주 남구 봉선로84번길 3, 306호
Tel. 062-676-3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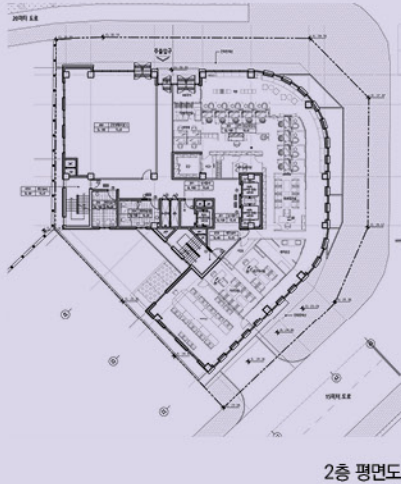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6-6번지 / 대지면적 : 1,270.80㎡ / 건축면적 : 823.20㎡ / 연면적 : 10,862.57㎡ / 건폐율 : 64.77%
용적률 : 600.25% / 규모 : 지하 3층, 지상 10층 / 주용도 :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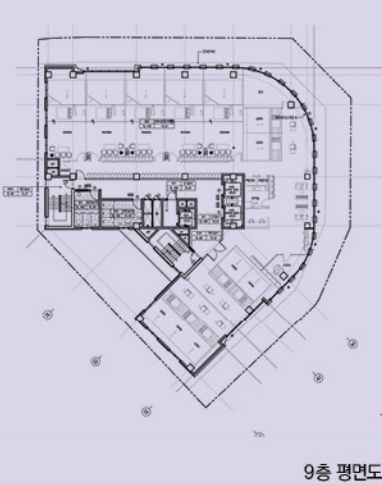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9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건물유지보수 절감 (내부식성)
철근대비 초기균열 1/2 감소
탄소배출량 45% 저감
자재비 절감
녹색건축물 가산점혜택

시공사

중대재해 예방 (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 (인건비, 장비비)
물류비절감 (철근대비 60% 절감)

건축사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친환경소재 인증 (EPD)
품질인증 (K마크 Q마크인증)
고강도, 경량성, 내부식성, 비전도성소재
사회구성원보호 (경량소재)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 (경량소재)
작업 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사회적 소외층 일자리창출
여성, 고령자 작업 가능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비주거 건축물 의무비율 15% → 10% 완화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와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와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 후 올해 5월 ‘2024년 광주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와 용도 의무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 14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상가 공실률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가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상업지역 공동화가 억제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동산경기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 개인의 의견조치를 10월 28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설치·크기 등 기준 신설, 일조권과 관련한 기준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법 개정 이전 건축된 경우에는 증축 및 용도변경 허용,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횟수 규제 완화, 옹벽 등 공작물 축조 미신고 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완화, 건축허가 시 현장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를 명부 내 건축사 지정(설계 건축사가 명부에 등재된 경우 본인 수행, 미등재 시 명부 내 건축사로 지정), 상주감리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실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4-82번을 참조하면 된다.

2024 광주_아시아건축대전 ‘인권 + 건축’ 개최

8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광주전남건축가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 광주_아시아 건축대전이 ‘인권 + 건축’을 주제로 지난 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식 및 시상식과 함께 개최됐다.

이번 건축대전은 20일까지 건축가와 학생들에게 건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는 창의적인 건축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일반공모전 부문을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공모전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까지 결선 심사에 걸쳐 대상을 포함한 입상작 12작품, 특선 28작

품, 입선작 42작품을 선정했다.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조선대학교 최지은 씨의 작품 ‘Green Urban Station’이 선정됐고 외국 학생 작품 2점이 장려상과 입선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의 대상(광주광역시장상)은 박아인 씨의 ‘카멜레온 놀이터’가 선정됐다.

이번 건축대전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전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건축적 시각을 모으고, 인권과 건축의 접점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친환경 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및 적용 기술 세미나 개최

오는 11월 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실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와 (사)호남녹색건축연구원(연구원장 김기준)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친환경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및 주요 설계 적용 기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11월 7일(목)에 14시부터 17시까지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일정은 1교시 ‘친환경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소개’, 2교시 ‘친환경관련 건축물 설계 적용 기술’, 3교시 ‘친환경관련 건축물 설계 사례’의 내용으로 실무 관련자의 강사진으로 구성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 시 자기계발 1시간도 인정된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로 환경 친화적인 건물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결혼

– 임이기 건축사 / 푸른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1월 2일(토)

– 임종수 건축사 / 바우하우스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1월 9일(토)

– 오영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합동건축 / 자녀 결혼 – 11월 9일(토)

– 배석순 건축사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1월 23일(토)

•부고

– 최성호 건축사 / ESSE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9월 27일(금)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법정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대명리조트 2024년 겨울성수기 및 2025년 상반기 객실예약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24일(목)까지

– 접수대상 : 광주건축사연금관리 회원

– 대상일자 : 2024년 겨울성수기 및 2025년 상반기 기간

2024년 겨울성수기 : 2024년 12월 20일(금) ~ 2025년 3월 2일(일)

2025년 상반기 : 2025년 3월 3일(월) ~ 7월 17일(목)

(소노벨 경주는 리모델링공사로 제외)

– 추첨발표 : 2024년 10월 29일(화) 이후 개별문자 및 유선통보 예정

백암탐방안내소

최우길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무등길 27-1
Tel. 061-792-489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번지 / 대지면적 : 3,000㎡ / 건축면적 : 449.52㎡ / 연면적 : 813.36㎡ /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파주석

2024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도내 건축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남도청은 지난달 26~27일 고흥썬밸리 리조트에서 주거문화 트렌드 공유와 2025년도 건축정책 계획 안내 및 의견 수렴을 갖는 ‘2024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라남도,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의 특강과 인문 교양 및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원과, 한국구조안전 연구원 조철희 대표를 초빙해 주거문화 트렌드와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도모했다. 또한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내년 주요업무 계획 안내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소개 등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갖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 관계자의 업무역량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다음달 30일까지 비용과 규모 파악 예정



(사진 = 고흥군청 제공)

전남 고흥군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7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비용과 규모 파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현장 직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보완하고,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미등재), 덧씌운 지붕, 슬레이트 소량 사용 건축물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는 지자체 슬레이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군에서 매년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지난 1일 장흥 JNJ CC에서... 회원 약 100여명 참석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1일 장흥 JNJ CC에서 이경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 및 시타, 골프대회, 만찬 등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이경일 회장은 “잠시 일상에 벗어나

회원들과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지역지역건축사회, 사랑의 물품 전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생필품 기부



(사진 = 순천지역건축사회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운기)는 지난 4일 송광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선화)를 방문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쌀국수·화장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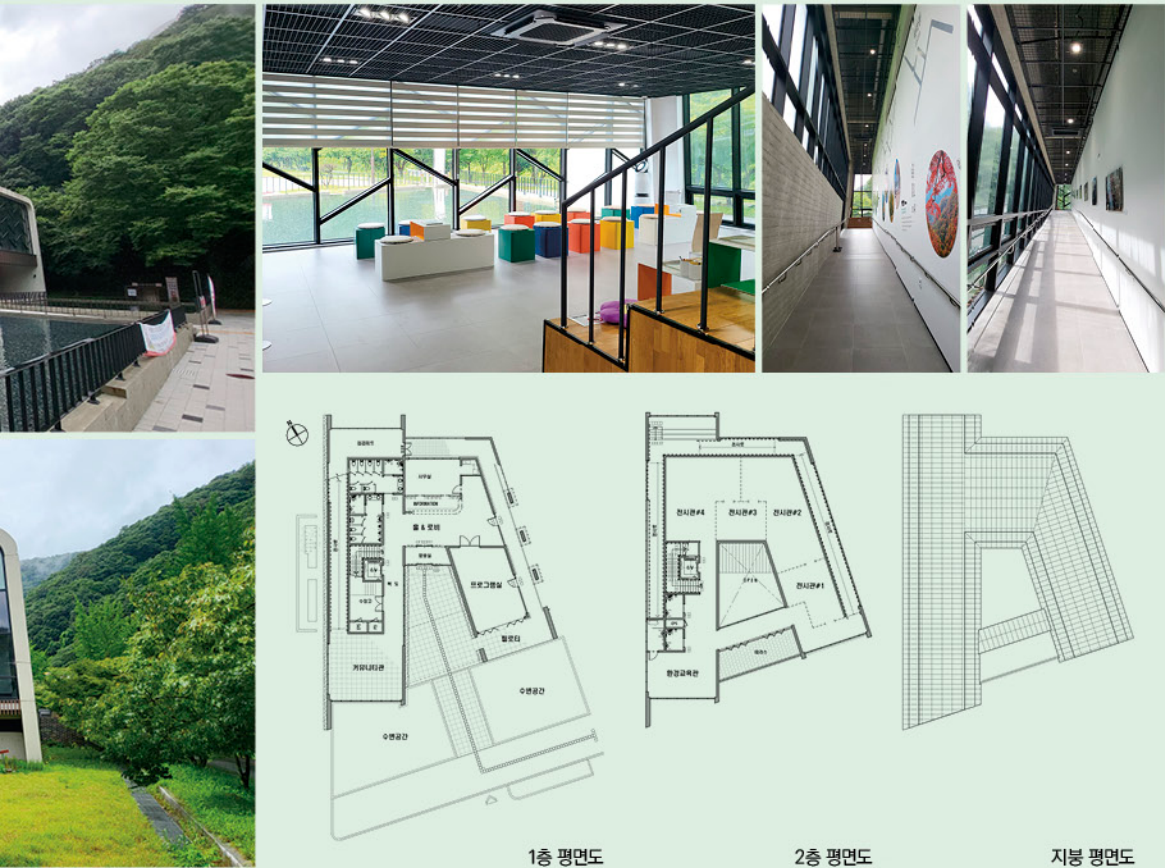
이번 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운기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송광면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물품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지역 내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생필품 기부,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반한 생태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기반시설의 부족과 기존 탐방안내소의 노후화로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 탐방안내소를 계획하게 되었다. 신축 백암 탐방안내소는 기존의 단순 안내가 아닌 탐방지원센터 기능을 확보하고 각종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을 통하여 내장산 국립공원을 알리고 탐방객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치 및 공간을 구성하였다.

백암 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 안내소 최초로 층간 경사로를 계획하였다. 배리어프리(B.F)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결과물로 공간에 제약없이 모든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로 내벽면에는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외벽면은 커튼월로 구성하였다. 특히 건물 배면부 경사로 중간지점에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있는 자리에서 내장산 백학봉(白鶴峰)을 그대로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건축적 MASS 개념으로 백암산(白巖山)의 '白'를 평면적으로 형상화하고 백양사 쌍계루(雙溪樓)를 모티브하여 탐방안내소 입구에 수변공간을 만들어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백암 탐방안내소가 내장산을 알리고 탐방객들의 편안함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설계를 하였고 의도한 바 잘 운영되고 있음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

전남 광양읍·광영동 일원, 고도지구 지정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 살린 이미지 구축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도심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과 도시 경관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옛 광양읍성이 있는 읍성지구는 16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목성지구는 20m 이하로, 광양도립미술관이 위치한 인동지구는 73m 이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광영동 일원은 수어천·공원 등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24m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내년 1월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 조망권 침해, 도시 경관 저해가 우려된다”며 “경관을 고려한 균형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높이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 백운동전시관 오는 22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 예정 주변 경관을 고려한 설계로 인기명소로 기대감...



(사진 = 강진군청 제공)

전남 강진군은 오는 22일 강진 백운동전시관 준공식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다.

월출산 아래 풍경이 좋기로 이름난 지역에 자리 잡은 백운동전시관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하식 구조로 설치돼 명승인 백운동 원림과 어우러진 양식인 형태이며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연면적 1,507㎡, 건축면적 920㎡로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실, 티 가든, 뮤지엄숍,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 국립박물관 못지 않는 규모와 시설로 전시관 지상 1층은 티 가든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실, 뮤지엄숍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부를 포함한 주변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어서 월출산과 백운동원림의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으며 상쾌한 개방감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전시실에는 현대 작가의 설치 미술품과 함께 보물급 유산인 동강공이 의경 초상화 진본과 함께 이의경이 사도세자에게 하사받은 시가 전시돼 있다.

상설전시실로 들어서면 백운동 원림 홍보 영상 ‘백운동 시간의 길을 걷다’ 코너로 회의실과 영상실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나온다. 이곳을 지나

상설전시실 본관으로 향하면 백운동 건물을 모티브로 한 디오라마와 유유자적하는 처사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현장감 있는 전시환경을 제공한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박성수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눈소5길 35-6
- **전입**
 - 정영진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204호
 - 김홍용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204호
- **결혼**
 - 정종민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9월 21일(토)
- **부고**
 - 조익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진 / 빙부상 - 9월 1일(일)
 - 강길선 건축사 / 우광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9월 4일(수)
 - 오선화 건축사 / 아름다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9월 9일(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평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호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정정합니다」

2024년 9월 178호 4면의 전남 회원 작품 설계자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작품명 : 백암탐방안내소
설계자 : 최우길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무등길 27-1 / Tel. 061-792-4891

김영태 주택

정창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 Tel. 063-226-427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1-10 / 대지면적 : 392.20㎡ / 건축면적 : 153.56㎡ / 연면적 : 210.97㎡ /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써니브라운건식돌임, 노출콘크리트



이길환 건축사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

4개 부문 중 경제대상 부문 수상



(사진 = 이길환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전)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을 비롯한 수상자 4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 상은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모범적인 인물들을 찾아 수여하는 전북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는 혁신대상, 경제대상, 문화대상, 나눔대상 4개 부문에서 총 26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으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총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 한상섭, 경제대상 이길환, 문화대상 조상훈, 나눔대상 김남수 총 4명이다.

경제대상 수상자 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이길환 대표는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수준 향상과 협력사 선정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300여 명의 건축인재 채용, 도내 우수작품 설계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5일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44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데미샘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연2회),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9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개최

오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

전북도 내 건축의 일상적 가치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 미래 건축문화를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도청 1층 로비 및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제는 전북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화제는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를 비롯한 한중일 국제교류 건축작품 전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한옥건축과정 영상 소개, 건축드로잉전, 공공건축 시설작품 특별전 등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북 건축의 전통과 우수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청 누리집 전북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가 도민들이 건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 건축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올림피아드' 개최

전북도 건축인재 발굴 육성을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건축학과가 주관하는 '2024 건축올림피아드'가 지난 12일 13시에 전주대학교 공학1관 건축학과 멀티라운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도내 중·고등학생 및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제시된 주제를 해석하여 스케치 후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임기제 고용으로 지원저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1월 건축법을 개정,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등 총 5곳이다.

하지만 이 중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총 3곳 외에 나머지 익산시는 올 하반기, 부안군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해당 지역들이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센터 설치 지연은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건축법 시행규칙상 센터 내 건축물 화재 등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임기제 고용 형태로 인해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전문인력임에도 근무여건이 열악해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지방 여건상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자격 취득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증가와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지방 특성에 맞게 지역의 건축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택지개발된 단독주택단지 내에서 사적영역으로서 마당 공간의 재정의가 필요했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남측 공원을 가파르게 파내면서 형성된 남고 북저의 대지조건 극복 또한 필요했다. 레벨이 다른 4개의 공간 주차장, 중정1, 안마당, 중정2를 통해 주거내 각각의 공간에 빛과 영역성과 확장성을 부여하여 사적영역이 고려된 택지내 주거의 유형으로 디자인 하였다.”

도내 건축안전 전문가는 “의무설치 기초지자체 간 센터 공동 설치·운영을 통해 전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해결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 국립군산대 건축전’ 개최

건축공학부 49명의 학생들의 전시와 시상식



(사진 = 군산대 제공)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는 ‘2024 국립군산대 건축전’을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건축공학부 49명의 학생들이 4년 동안 익혀온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심혈을 기울인 19개 작품 전시와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시상 및 축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전북 진안군, 군립 공공도서관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 당선작 발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



(사진 =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당선작))

전북 진안군이 군립 공공도서관으로 추진 중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진안을 군상리 481번지 일원인 학천지구에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진행해 건축사사무소 8개소에서 작품을 응모했고, 최종적으로 당선작 1점, 3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안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주)선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으로 암반 지질과 레벨 차이가 있는 부지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형태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배치했으며, 마이산 등 주변 환경과의 조

화를 고려한 설계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이번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오는 10월부터 약 8개월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립공공도서관이 없어 군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를 경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시설 사용허가 불허가 결정

주민 수용성, 주변 환경 보호 검증 등 미비

전주시가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 주변의 환경 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사용시설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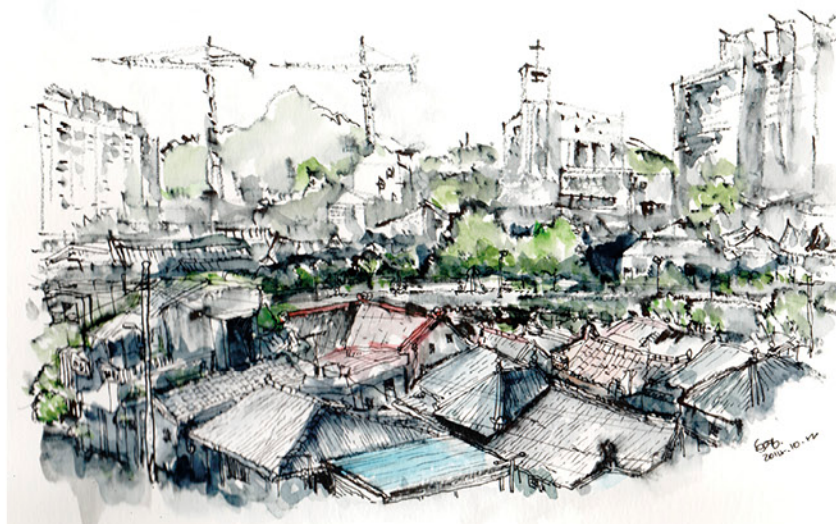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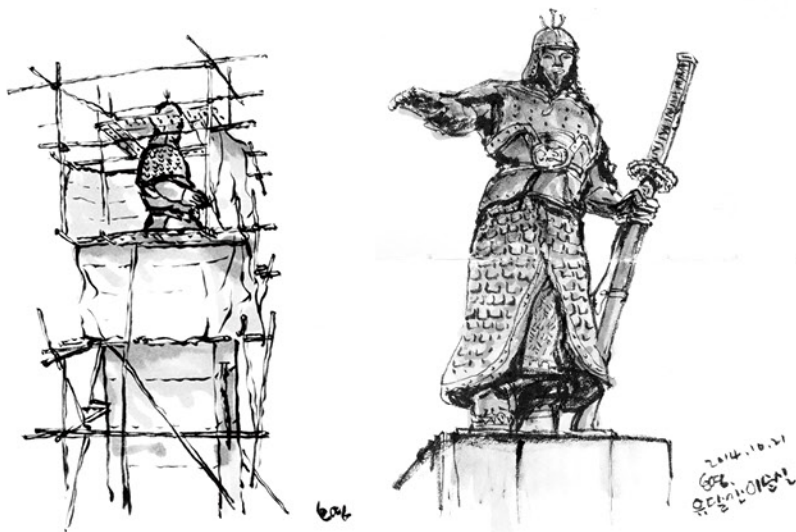
- **입회**
 - 안현지 건축사 / 지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43, 1층
- **결혼**
 - 안희경 건축사 / HEE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9월 22일(일)
 - 송명욱 건축사 / 명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10월 5일(토)
 - 서영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진건축 / 아들 결혼 - 10월 5일(토)
- **부고**
 - 서남근 건축사 / 선인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9월 12일(목)
 - 전영배 건축사 / 대보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9월 25일(수)
 - 박승용 건축사 / 도원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9월 30일(월)

나만의 건축디자인 “스케치”로 이야기하다

“도시의 깊은 속내를 담고 있는 목포근대화 거리를 거닐며 그려 본 스케치들은 이야기가 되고 남아버린 것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 풍경 속에서 마주하던 건축에 대한 작은 고민들로 이야기하며 걸었던 것 같다.”



안호영 건축사
(유)어반후드 건축사무소(전남)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범위 확대 및 신속한 조사 등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수산물 안전센터의 적합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심사위원 : 김준철(에코플랜건축), 안길전(일우엔지니어링건축), 박승동(엘드림건축), 김미영(금양이엔씨건축), 이주경(샘터건축)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
 - 대지면적 : 700㎡
 - 건축면적 : 227.18㎡
 - 연면적 : 906.1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마 감 : 외단열 플라스틱, 유글라스, 섬유강화시멘트패널 외

당선작

강효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강남



II 디자인컨셉

수산물 안전센터의 상징성
수산물 안전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여수의 풍경을 건축적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센터의 상징성 강화

컨셉이미지
바다의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수산물의 신선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시

신뢰 [색상]
바다의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수산물의 신선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시

정화 [색상]
바다의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수산물의 신선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시

정화 [형태]
바다의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수산물의 신선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시

여수의 자연환경을 담아낸 실내공간계획
가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계획과 더불어 여수지역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자연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제안

01. 공간 기능하기
여수의 자연환경을 담아낸 실내공간계획

02. 보이드
공간을 열어 수산물 안전센터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제안

03. 유기적 공간
여수의 자연환경을 담아낸 실내공간계획

디자인 프로세스

01. 정방형 매스
전반 출입을 위한 진입공간 확보 후 전체에 맞춘 정방형의 인지상 높은 매스 형성

02. 기반부 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기반부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 프로그램을 배치

03. 보이드 형성
입장공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위치를 설정 후, 두 영역 사이를 열어 보이드 형성

04. 해구(海溝) 아트리움
해구와 활기찬 물고기의 움직임을 담아낸 아트리움은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휴게공간 제공

한 편의 시 _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몽당빗자루

구슬의 어머니옆에 앙상한 몽당빗자루
몇해를 살았나 몽당빗자루...

꽃다운 스무살에 시집과 고생고생 그세월

내 몸 다 내주며 살아온 세월

앙상해진 빗자루와 단짝이네

흐트러진 주변을 깨끗이 쓸어내고 나란히 앉아

단짝인 몽당빗자루는 지나온세월의 푸념을 한없이 들어주네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정영욱 / 부크림 / 2022. 10. 28.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벌써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으며 2024년의 끝자락이 와 간다. 이번 달은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며 에세이 책을 추천하려고 한다.

학창시절 입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달에 수능이 있을 수능생들과 건축을 하며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을 추천하고 싶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라는 책은 당신의 힘듦을, 당신의 아픈 상처와 지친 마음을 알고 있다고. 관성처럼 또다시 찾아오는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은 책이다.

그런 날이 있다. 종일 휘몰아치는 것만 같은 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언가를 잃어버린 막막한 기분으로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도 없어서, 축가라앉은 기분이 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 친절하지 않은 세상을 마주했다라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다정하고 따뜻한 문장을 마음 한편에 마련해 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다. 오늘의 나를 다독이며, 내일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다. 이 책은 힘든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당장의 하루가 못 견디게 외롭고 힘들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서 막막하더라도, 당신이 살아온 매일의 하루가 겹치고 쌓여 맑게 갠 푸른 하늘처럼 선명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당신은 언젠가의 당신을 이룰 밑거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아가면 된다.

입시 생활을 하며 공부만 하느라. 밤낮없이 밤새가며 과제에 치여 살아 바빠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나에게도 이 책의 한 줄 한 줄이 위로가 되었듯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응원 받고 싶으신 분, 위로가 필요한 분, 자신과 친해지고 싶으신 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 성장통에 아프신 분, 사랑에 상처 받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The Gallery of Horyuji Treasures
(Taniguchi Yoshio, 1999)

일본 도쿄 우에노공원
2024년 10월 4일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40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